6. 선사문화의 지역적 특성

전남 동부지역의 고고학적인 유적·유물로 본 지역적인 특성을 각 시대별 또는 유적·유물로 세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1963년 미국인 샘플(L. Sample)과 모어(A. Mohr)가 순천 북쪽 구릉상에서 뗀석기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우리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984년 최무장이 발견한 곡성 제월리 유적도 많은 논란이 있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남지역에 구석기시대 유적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1986년부터 시작된 주암댐 수몰지구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송광면 신평리 금평, 덕산리 죽산, 우산리 곡천 그리고 화순 사수리 대전 지석묘 발굴과정에서 이암제와 석영제 뗀석기가 발견되어 구석기 유적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어 이들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구석기 유적임이 확인되었다. 그후 섬진강변인 곡성 주산리와 송전리의 발굴에서도 입증되었다.

최근에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후기구석기에서 중석기시대에 해당되는 유적들인데, 이는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켜 주었으며, 또 잔석기의 존재로 보아 지금까지 공백기로 남아 있던 중석기시대의 설정이 가능해져서 시기적인 공백을 메워주는 업적을 가져왔다.

신석기시대의 유적도 최근 여천 송도 조개더미 발굴을 비롯하여 광양 오사리 돈탁과 진정리 중산 조개더미, 주암댐 수몰지역인 보성 죽산리와 송광면 대곡리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황전면 대치리와 여천시 월내동 지석묘 발굴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빗살무늬토기 유적의 조사와 발견으로 이곳은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연구의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천 송도 조개더미는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발굴된 신석기 유적이며,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흑요석제 석기나 융기문토기 등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최근의 조사를 통해 전남지역의 신석기문화는 남해안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서해안을 타고 내려온 신석기 후기로 보아오던 기존의 학설을 신석기 전기 말까지 올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주암댐 수몰지구인 송광면 대곡리와 보성 죽산리 유적이 있는데, 이는 전남 내륙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토기문양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경남지역의 빗살무늬토기와 통하고 있어 전남 동부지역의 신석기문화는 경남 남해안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남 동부지역의 청동기시대는 고고학 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또 그 문화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청동기 유적은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유적에는 주거지·석기제작소·토기요지·유물산포지 등이 있으며, 무덤유적으로는 지석묘뿐이다.

생활유적은 송광면 대곡리 도롱과 우산리 곡천, 화순 복교리가 있는데 모두 주암댐 수몰지역이다. 여기에서 발견된 주거지들은 원형과 둥근 네모꼴 주거지가 있다. 특히 원형주거지는 중앙에 타원형의 구덩이가 있고 그 주위에 기둥구멍이 2~4개가 있는데 부여 송국리, 광주 송암동, 영암 장천리 등 서해안지역과 동일한 형식이다. 이것은 서남해안지역의 독특한 형식이기 때문에 마한의 문화요소로 보기도 한다. 주거지 형태상이나 부여 송국리 주거지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삼각형석도·유구석부 등의 존재에서 서남해안을 타고 전파된 문화의 영향이 전남 동부지역에 미쳤다고 추측된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구멍무늬토기나 골아가리토기는 우리나라 동북계 문화요소인데, 이는 한강·낙동강·남해안 지역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지역의 영향하에서 청동기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보성강 유역의 생활유적들은 한 시대의 유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 심지어 백제시대까지 중복되어 발견되고 있어, 타지역에서 동일 시기의 유적만 발견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무덤유적인 지석묘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이 조사된 곳이 전남 동부지역이다. 이 지역의 지석묘 중 주암댐 수몰지구, 동복댐 수몰지구, 여천시 봉계동·평여동·월내동, 여수시 오림동, 광양 원월리, 순천 황전면 대치리 등은 1980년대 이후부터 발굴된 곳이다. 이 지역 지석묘에서는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석곽형 석실이 주류를 이루고 위석형석실이 성행하는 등 지역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지역, 특히 영산강 유역과 큰 차이가 있다. 즉 영산강 유역에서 많이 보이는 석관형 석실이 동부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석곽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석검이나 옥 그리고 비파형동검이 지석묘에서 출토된 바 없으나 동부지역에서는 이 유물들이 부장풍습으로 인해 발견된 예가 많아 지석묘 사회에서는 두 지역의 문화배경이 서로 달랐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지석묘문화는 부장풍습이나 출토유물에서 경남지역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석묘에서 삼각형석도·유구석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영산강 유역의 문화요소도 받아들여졌다.

청동기시대에 전남 동부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은 석검·청동기·옥·토기 등에서도 나타난다. 석검의 형식은 이단병식·일단병식·유경식이 있는데, 이단병식은 순천 오천동과 송광면 신평리 등에서만 출토되었고, 대부분은 일단병식과 유경식 석검들이다. 이 형식들 중에서 유경식에는 경부만 있는 것, 홈이 파인 것, 구멍이 있는 것 등이며 지석묘나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넓은 경부 양쪽에 홈이 있는 유경식석검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석묘의 부장품으로 사용되고 출토 빈도가 높아 보성강 유역의 특징적인 석검이다.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15점, 비파형동모 2점, 청동촉 1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모두 40여 점의 비파형동검이 발견된 것과 비교해볼 때 가장 밀집출토된 곳이 전남 동부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도 여수 반도지역이 그 중심적인 출토지임을 알 수 있다.

타지역 출토 비파형동검은 전언을 통해 출토지가 알려진 것들뿐이지만,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모두 지석묘 출토품으로 확실한 출토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는 지대하다. 또한 영산강 유역이나 경남지역에서는 세형동검계 청동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어 지역간의 청동기 출토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옥도 전남 동부지역이 가장 중심적인 출토지임이 밝혀졌다. 평여동 지석묘에서 350여 점의 옥이 출토된 것은 청동기시대의 어떤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예이다.

토기 중 채문토기가 있는데, 화순 장학리 출토 채문토기를 시원형식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동북계의 토기인 구멍무늬나 골아가리토기가 발견되고 부여 송국리 토기들도 나타나, 전남 동부지역의 토기문화는 서해안지역과 남해안지역에서 유입된 토기가 혼용된 양상을 보여준다.

위에서 본 전남 동부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서해와 남해의 문화영향을 받고 있지만 비파형동검, 옥, 다양한 석검, 특히 유경식석검의 출토는 이 지역에서 성행한 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물들은 타지역과 달리 지석묘와 결합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전남지역에서 철기시대의 유적은 1986년 해남 군곡리 조개더미의 발굴로 처음 확인되었으

며, 그후 1986～1989년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로 드러난 송광면 대곡리 도롱 주거지는 우리나라 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대곡리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백제시대에 걸친 주거지들이 중복되어 나타나 각 시대에 따른 주거지의 변천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지 상호간의 형태변화, 생활상의 변천연구에 유일한 유적이라 하겠다. 이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철기·옥류 등은 철기문화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며, 전남지역에서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마한시대의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전남 동부지역에서 고분유적은 아직 조사된 바는 없지만 매장문화재 신고 유물 중 고분 출토품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어 이 지역에도 고분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특히 곡성 석곡면 하송리 출토유물의 조합상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해남 송지면 월송리 석실분과의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어 이 고분이 석실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중 토기들은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나 석실분의 출토품과는 대체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전남 동부지역의 고분 출토로 추정되는 유물 중 굽다리접시(고배) 등은 신라나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고, 또 일부 토기들은 이들 지역과 같은 형식이 많아 지리적으로 인접된 가야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로 보아 이 지역은 영산강 유역과 가야지역 문화의 점이지대로, 전남 고대사를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